

防産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를 위한 崔世昌 국방부장관 주재 리셉션 성황...



이날 리셉션(사진 아래)에서 崔世昌 국방부장관은 방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사의를 表하였다 (위사진 왼쪽부터 崔世昌 장관, 柳纘佑 防振會 회장, 鄭秀烈 상근부회장)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를 위한 '92 리셉션이 지난 12월 8일 육군회관에서 崔世昌 국방부장관 주재하에 성황리에 열렸다.

방산업체 대표 및 정부측 관계관 등 2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리셉션에서 崔世昌 국방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 방위산업의 발전과 軍의 전력증강을 차질없이 뒷받침해준 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사의를 表하였다.

이어 기술패권시대 진입과 함께 과학기술 안보역량 축적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최근 국방과학기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과학기술 현대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방안을 구체화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방예산의 제한에 따라 핵심부품의 국산화 추진 및 防産업체의 품질보증활동 강화를 역설하면서, 70년대 태동 당시의 의욕을 되살려 정부와 업체가 다시한번 혼연일체(渾然一體)의 노력으로 기술장벽을 극복해 나가자고 피력하였다.



産·學·研·官 항공우주 기술정책 심포지엄 열려...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

보기 위한 産·學·研·官의 항공우주기술정책 심포지엄이 11월 24일 항공우주연구소 강당에서 各界 相關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이 '90년대에 들어 선진항공국 진입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음에 비해, 국내 相關산업의 진행이 종합적이기 보다는 개별사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때, 이번 심포지엄은 各계 의견 수렴과 함께 새로운 轉機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항공우주산업의 中·長期 수요전망과 사회경제적 타당성
 - 주 명 진(세종경제연구소 이사장)
- ▲ 항공우주산업과 국가발전전략 구상
 - 민 성 기(국방부 획득정책과장)
- * 참조 : 이번호 p.p 36~41
- ▲ 항공기술의 최근 동향 및 전망
 - 노 오 현(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 ▲ 우주기술의 최근 동향 및 전망
 - 황보 한(한국통신위성사업단 단장)
- ▲ 항공우주 기술개발에 대한 국내·외 제약(制約) 요인
 - 안 병 하(KIDA 무기체계연구센터 소장)
- ▲ 항공우주 핵심기술의 전략적 확보방안
 - 홍 재 학(한국항공우주연구소 소장)
- ▲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 이 대 원(三星航空 社長)

제 2 회 무기체계 평가분석 세미나 개최

제2회 무기체계 평가분석 세미나가 12월 1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회의실에서 産·研·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안병하 소장(KIDA 무기체계연구센터) 주재로 진행된 9편의 주제발표(제1부)와 김동신 소장(합참 전력기획부) 주재하에 「합동 전력 소요제기업무 발전방향」(제2부)을 중심으로한 발표와 토론 등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날 제 1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복합무기체계 비용 처 효과 분석
 - (황 흥 석, 동의대 산업공학과 교수)
 - 무기체계 획득/운용 意思결정시 주요범위 및 기본이론과 RAM 환경 및 순기비용을 고려한 복합무기체계의 최적 체계구성과 이의 성능평가를 위한 분석모델 연구
- ▲ 절충교역에 대한 제언
 - (홍 걸 회, 국방군수본부)
 - 우리나라의 절충교역은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성장이 미흡하였으며, 가동을 저하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와 생산시설 유지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사업의 연속성과 長期획득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업체로 하여금 사전 대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안과제.
 - 산·학·연의 공동연구개발체제 수립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국내물량 제작소요 및 수요軍이 필요로 하는 창정비능력 구비에 최선의 노력 경주.

- ▲ 기동장비 발전추세
 - (김 종 규, 국방과학연구소)
- ▲ 디젤추진 잠수함의 미래
 - (박 철 성, 해군본부, 참조 : p.p 42~47)
- ▲ 정비가동률 향상을 위한 정비비 예측기법
 - (김 용 환, 합참)
- ▲ 지상무기체계의 종합평가 및 획득방안 연구
 - (한 철 회, 한국국방연구원)
- ▲ 전술기의 항공전자분야 성능개량 사업시 경제성 판단방법 소개
 - (이 주 형, 한국국방연구원)
- ▲ 전자전 장비 효과도 분석기법 연구
 - (한 회·김종국, 한국국방연구원)
- ▲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실태 조사
 - (최성빈, 한국국방연구원, 참조 : p. 29)

청와대 주재 기술·경제·안보위원회 설치 시급

- '92 防産 정책개발 특별 심포지엄에서 ...

전환기 의 몸살을 앓고 있는 방위산
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특별
심포지엄이 방산학회 주관으로 12월 2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白永勳 방산학회장, 鄭秀烈
防振會 상근부회장 및 朴熊 국방부 제2차관
보를 비롯한 1백20여명의 産·學·研·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이 날 심포지엄에서 산·학·연·관의
연계와 총체적인 국가적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청와대 주재의 「기술·경제·안보위원회」가 구
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비상한 관
심을 끌었으며, 무기 및 기술획득심의회에 민
간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등 훌륭한 제
언들이 많이 제기되어,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하이라이트였던 종합토론
을 발표順으로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金 鐵 煥 국방대학원 교수

전력증강 패턴과 개념이 南北군
사력 격차를 줄이려는
조기전력화의 개념에서 이제는 기술 중심으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국방부 내에 실질적으로 과학과 기술을 전
체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 통제, 조정하는 국방과학기술기획조정실
같은 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 金 相 鳳 두원중공업 사장

현재 방산업체는 국제, 국내 정세변화와
방산 물량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생산품의 업체 독자적인 수
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유희시설 처리와 물량의 지속 유
지를 위해 확정된 예산만이라도 방산부문에
지원 투자해줄 것이 요망됩니다.

* 李 源 裁 산연연구원 실장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만 의존한 연
구는 양산화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보
다는 무엇을 개발하며, 성공률을 얼마나 향상
시키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李 宗 元 과거치 연구개발조정실장

냉전 이 종식된 현 시점에서 안보능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연구개발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만이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정책개발을 위한
특별심포지엄이 12월 2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1백
20여명의 産·學·研·官
의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이 날 심포지엄에서
산·학·연·관의 연계와
총체적인 국가적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청와대 주재
의 「기술·경제·안보위원
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韓·中 과학기술 협력센터 설립



▲ 사진 왼쪽부터 李漢彬 KIST 이사장, 宋健 중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 金鑣玄 과학기술처 장관, 徐廷旭 KIST 원장, 權五寬 KIST 부원장

韓·中 과학기술 협력센터가 11월 2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갖고 출범하였다.

이번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립은 그동안 한·중 양국이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촉진을 위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과학기술장관 회담 등을 통해 협력 창구의 설치에 합의(1992. 9. 20)한데 따른 것이며,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宋健 주임(국무위원)의 방한에 맞춰 한국과학기술연구원내에 현판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 盧錫鎭 삼성항공 副社長

통일 독일의 경우를 보면 서독의 발전된 무기체계를 동독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도 통일이후를 대비해 국내무기체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정부에서 長期 인사제도와 지속적인 물량을 보장하고 많은 투자를 통해 방산업체의 여건을 조성,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의 방산업체는 투자여건도 어렵고 정부에 어려움을 하소연할 창구도 마땅치 않습니다.

* 姜昌淳 상공부 항공·방산과장

방산업체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지난 '92년 4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였으며, 이의 후속조치로 현재 상세한 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 洪泰慶 국방부 획득개발지원과장

방산업체 전용시설의 가동실태를 조사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방산특조법에 명시된 보조금 지급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 成百寬 삼성항공 상무이사

업체 경영난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방산관련 규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의 발표내용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기를 적극 요망합니다.

* 金尚憲 (주)풍산 社長

방위산업도 구조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미 투자한 시설과 연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향후 획득되는 첨단기술과 접목될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朴熊 국방부 제2차관보

방산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군수, 획득, 연구개발분야 근무자에 대한 승진 및 장기근속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국방과학기술 현대화 및 인력, 정보 등 3개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鄭秀烈 防振會 상근부회장

방산업체의 어려움은 업체, 정부 등 어느 누구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습니다. 국가와 업체 모두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오늘 심포지엄의 발표내용중 해결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泰)